

획기적인 대형 연구성과 산출을 기대한다



글 | 강신원 _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2003년 이래 그 동안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입국'이라는 기치 아래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수행해 왔다. 2004년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출범과 지난 3년간 R&D 투자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1.9배에 달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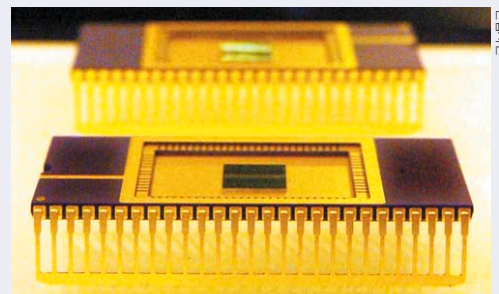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결실 있는 성과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계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가?

먼저, 과학문화의 확산과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이다.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집중하면 국제대회에서 따는 메달 수는 늘릴 수 있겠지만 국민 일반의 건강과는 별상관없듯이, 대중 속에 파고드는 과학문화의 확산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과학기술입국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학의 본질인 합리성과 창조성이 일반 대중의 생활에 깊게 스며들었을 때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는 자연스럽게 육성될 것이다.

둘째, 대형 연구성과의 산출이 절실히 기대된다. 과학기술 분야가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10조원에 달하는 정부 R&D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과학기술 종사자들은 국민을 볼 면목이 없을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선정한 2006년 10대 과학기술 뉴스에서 1위에 오른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40나노 32기가 플래시 메모리 개발'과 같은 소식이 올해에도 쏟아져 나와 주길 바란다. 특히, 정출(연)의 종사자로서 올해에는 정출(연)에서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할 획기적인 연구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셋째, 과학기술의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0나노 기술을 적용해 개발했다고 발표한 세계 최소형 1기가바이트(GB) D램.(2006년 10월 19일)



이현우

진하고 해외 인재 활용을 통해 빠르게 세계 일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연구 활동에 요구되는 윤리적, 법적 규범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것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을 보다 개방적인 환경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의 표현이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상호 비판과 검증을 통해 발전하는 분야로, 폐쇄성과 독단은 과학기술을 질식시키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다. 첨단과학의 발달은 기초과학의 견실한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며, 기초과학 또한 새로운 연구장비와 시설이 없이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장비와 시설이 연구 수행의 부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연구 인프라 구축에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세기 후반 들어 입자가속기 개발, 질량분석기 개발 등으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론이나 실험 못지않게 독창적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것 역시 과학기술 발전의 큰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올 2007년은 600년 만에 한번 돌아온다는 '황금 돼지띠 해'라고 하니 더욱 특별한 해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올해에는 과학기술계가 우리나라의 황금돼지가 되어 앞에서의 바람도 실현하고 양극화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기를 절실히 바란다. ㉞